

胎兒의 發達過程에서 찾아본 惡阻의 原因에 대한 考察

¹韓醫學古典研究所 研究員 · ²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教授
尹銀卿¹ · 金鍾鉉^{2*}

A Study on the Cause of Nausea and Vomiting of Pregnancy in Relation to Fetal Development

Yoon Eunkyung¹ · Kim Jong-hyun^{2*}

¹Researcher at Institute of Korean Medical Classics

²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Morning Sickness, or Nausea and Vomiting of Pregnancy(NVP) is a frequently experienced phenomenon among pregnant women whose cause is still unknown. While the key trait of this symptom is its temporality, it is hardly considered in existing studies on the cause of NVP based on Korean Medical(KM) literature. We hope to remedy this.

Methods : We looked for contents on fetal development in Korean Medical literature from the Siku Quanshu as well as other key literature of KM and examined the results together with contents on NVP to find any correlation.

Results : We found that the beginning stages, namely the third month mark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ourse of fetal development where the fetus's own Shen(神) is first developed by work of the mother's Heart(心). In other words, the third month is when the mother's and child's Shen first encounter.

Conclusions : We hypothesized that NVP whose symptoms are closely linked to the functions of the Heart, is likely to be related to this event, which was supported by the common involvement of the Heart which was involved in both fetal development and NVP during the third month of pregnancy.

Key words : morning sickness, NVP, pregnancy, fetal development, Korean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 +82-31-750-8724, E-mail : ultracoke82@gmail.com

Received(April 30, 2019), Revised(May 2, 2019), Accepted(May 2,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흔히 입덧이라 부르는 惡阻는 임신 후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는 증상으로 대체로 임신 8~10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안정기에 접어들면 대부분 소실되는 임신의 징후로 알려져 있다. 임신진단기나 혈액검사로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없던 시절에는 오조의 증상으로써 임신을 확인하기도 했다. 惡阻는 이렇듯 임신부에게 흔히 나타나는 징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모든 임신부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양상은 다양하나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惡阻의 병인병기에 대하여 한의과대학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한방여성의학』에서는 임신 초기 월경 중지에 따른 衝脈의 上逆과 그로 인한 胃의 기능 이상으로 惡阻의 발생 기전을 설명하였다.¹⁾ 임신으로 인하여 자궁 쪽에 氣血이 모이게 되면서 기운이 胃로 거슬러 올라가 그로 인해 각종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惡阻의 원인으로 脾胃虛弱, 肝血 損傷, 痰飲 등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언급되었다. 생의학에서는 NVP(Nausea and Vomiting of Pregnancy)로 일컬어지며 그 병기를 호르몬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이 여러 가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²⁾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수많은 산모들이 경험해온 惡阻의 원인과 기전에 대해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임신 惡阻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증상의 완화를 위한 임상 연구였다. 이는 중의학계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문헌을 위주로 임신 惡阻를 연구한 결과로는 嚴曉瑩의 논문³⁾이 대표적이다. 그는 문헌에 기록된 惡阻의 명칭, 증상, 병기, 치법 등의 내용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기존 惡阻에 대한 견해를 종합했다.

임신 惡阻의 대표적인 증상은 惡心, 欲嘔吐, 不能食, 惡聞食氣, 擇食, 懈惰 등인데, 소화 관련 증상이 주되므로 脾胃기능의 실조로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는 惡心, 嘔吐, 不能食 증상들과 달리 임신 惡阻의 경우에는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요인이 없이 증상이 발현되었다가, 특별한 조치가 없이도 자연스럽게 소실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임신 惡阻의 가장 큰 특징은 시기성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惡阻의 시기성과 관련하여 그 기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惡阻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에서 시기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惡阻의 시기성이 태아의 발달과 연관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태아의 발달에 관한 설명의 원형이 되는 문헌들과 이 내용을 발전시키고 계보를 이어간 문헌들을 찾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惡阻를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惡阻의 특징적인 증상들과 시기성을 포괄하는 惡阻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했다.

대상 문헌은 먼저 『四庫全書』데이터베이스에서 태아의 발달 과정 내용을 실고 있는 문헌을 취합했다. 태아 발달 과정 내용이 실려 있는 문헌들은 『文子』, 『顛顛經』, 『脈經』, 『諸病源候論』, 『備急千金要方』, 『醫說』, 『小兒衛生總微論方』, 『婦人大全良方』, 『聖濟總錄』이었는데, 이 가운데 『文子』는 의서가 아니나 그 내용이 나머지 한의학 문헌들에 나온 내용과 관련하여 본고에 포함시켰다. 四庫全書의 문헌 외에는 馬王堆帛書의 『胎產書』, 『景岳全書』, 『醫學入門』, 『東醫寶鑑』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문헌 간에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앞선 문헌을 남기고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II. 본론

1. 惡阻의 證狀과 機轉

惡阻는 현대 임신부의 80% 이상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이를 가진 산모들이 경험해온 임신기의 특이적 증상이다.⁴⁾ 그 증상은 구토와 메스꺼움이 주되며 음식과 관련하여 두드러지

1) 대한한방부인과학회 編著. 한방여성의학(下). 서울. 의성당. 2012. p.524

2) S. Flaxman, P. Sherman. Morning Sickness: Adaptive Cause or Nonadaptive Consequence of Embryo Viability? The American Naturalist. 2008. 172(1).

3) 嚴曉瑩. 妊娠惡阻病 歷代文獻及方藥證治規律研究. 廣州中醫藥大學. 2013.

므로 '惡食'으로 불리기도 했다.⁵⁾ 한의학 문헌에서는 『諸病源候論』에 최초로 '惡阻'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⁶⁾ 임신기의 음식 기피나 구토 증세에 대한 언급은 『金匱要略』에 처음 보인다. 여기에서는 맥이 평상시와 다르지 않고 寒症이나 熱症이 없음에도 갈증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면 임신이라고 하여 음식에 대한 이상반응을 임신기의 생리적인 징후로 보았다.⁷⁾ 이후의 여러 문헌에 따르면 惡阻의 증상에는 앞서 언급한 嘔吐, 메스꺼움, 음식에 대한 기피 반응 외에도 心中憤悶, 頭眩, 懈惰不欲執作, 欲啖鹹酸果實, 多睡少起, 四肢百節疼煩沈重, 擇食, 口中無味 등이 있었다. 대체로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정신이 맑지 못하며, 몸이 무겁고 무기력해져 누워 있으려고만 하며, 특정한 맛을 가려먹게 되거나 입맛이 없어지는 증상들이었다.⁸⁾

惡阻는 임신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요하므로 문헌에서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병인병기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먼저 惡阻의 원인으로 산모의 稟賦不足이나 痰飲을 꼽았으며,⁹⁾ 산모가 특별히 허약하지 않거나 痰飲이 없는 경우라도 임신 시 衝脈과 任脈의 변화로 인해 구역질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嚴(2013)은 惡阻의 증상에 따라 그 원인을 분류한 선행연구에서 胃氣가 허약하여 中脘에 痰飲이 정체된 것, 산모가 먹은 음

식이 조화롭지 못하여 뭉친 것, 肝과 衝脈의 火가 상충한 것, 怒氣가 肝을 상해 胎氣가 上逆한 것, 肝鬱함과 동시에 脾虛한 것 등으로 정리했다. 그 대략적인 요인을 요약하면 산모의 脾胃가 허약하거나, 肝이 상했거나, 痰飲의 문제로 인하여 임신 중의 구토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⁰⁾

이상과 같이 惡阻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서는 惡阻 증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신체 상황을 임신으로 인한 血脈의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그 중에는 태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惡阻의 소실을 설명한 경우도 있었지만,¹¹⁾ 惡阻의 원인을 밝힘에 있어 태아의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惡阻의 주요한 특성이 태아 발달 과정의 초기에 발생했다가 소실되는 시기성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惡阻의 생리와 태아의 발달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본고에서는 여러 문헌을 통해 임신 후 태아의 발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惡阻의 시기성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2. 胎兒의 발달과정

가. 문헌별 胎兒의 발달 내용

1) 『文子』

태아가 출산까지의 10개월 동안 어떤 발달과정을 거치는가는 한의학을 비롯하여 인간의 양생을 다루는 도교적 관심사이기도 했다. 도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文子』¹²⁾에서는 노자를 인용하여 태아의 발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老子曰, 人受天地變化而生, 一月而膏, 二

4) Fairweather. Nausea and Vomiting in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968, 120(1), pp. 136-137.
5) 巢元方 撰集,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186.
6) “惡阻病者, 心中憤悶, 頭眩, 四肢煩疼, 懈惰不欲執作, 惡聞食氣, 欲啖鹹酸果實, 多睡少起, 世云惡食, 又云惡字是也.”(諸病源候論·卷四十一·任娠惡阻候)
7) “師曰 婦人得平脈, 陰脈小弱, 其人渴不能食, 無寒熱, 名妊娠. 桂枝湯主之.”(金匱要略第十二婦人妊娠病脈證并治)
8) 『諸病源候論·卷四十一·任娠惡阻候』, 『備急千金要方·卷二·妊娠惡阻第二』, 『婦人大全良方·妊娠惡阻方論第二』, 『景岳全書·婦人規上·胎孕類·惡阻 二』, 『東醫寶鑑·雜病·婦人』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9) “此由婦人元本虛羸, 血氣不足, 腎氣又弱, 兼當風飲冷太過, 心下有痰水挾之, 而有娠也.”(諸病源候論·卷四十一·任娠惡阻候), “若婦人稟受怯弱, 或有風氣, 或有痰飲, 既妊娠便有是病.”(婦人大全良方·妊娠惡阻方論第二), “凡惡阻多由胃虛氣滯”(景岳全書·婦人規上·胎孕類·惡阻 二一), “妊娠稟受怯弱, 便有阻病.”(東醫寶鑑·雜病·婦人·惡阻)

10) 嚴曉瑩. 妊娠惡阻病 歷代文獻及方藥證治規律研究. 廣州中醫藥大學. 2013.
11) “及三月餘而嘔吐漸止者, 何也. 蓋胎元漸大, 則臟氣僅供胎氣, 故無暇上逆矣.”(景岳全書·婦人規上·胎孕類·惡阻 二一)
12) 『老子』·『莊子』·『列子』와 더불어 道敎四書로 꼽히는 책으로, 春秋시대 宋나라 樊丘濩 사람으로 謀士이자 경제학자로 알려진 計然(辛鉞)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1973년 하북성 定縣의 中山懷王 劉修의 묘에서 죽간이 출토되면서 확인된 바 있다. Wikipedia Foundation Inc. Wikipedia. 2018.

月血脈，三月而胎，四月而胎，五月而筋，六月而骨，七月而成形，八月而動，九月而躁，十月而生。¹³⁾

노자 월, 사람은 天地의 변화를 받아 생하는데, 첫째 달은 膏가 되고, 둘째 달은 血脈이 되며, 셋째 달은 胚가 되고, 넷째 달은 胎가 되며, 다섯째 달은 筋이 되고, 여섯째 달은 骨이 되며, 일곱째 달은 形이 이루어지고, 여덟째 달은 움직이게 되며, 아홉째 달은 급해져서 열 달 짜가 되면 나오게 된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1월부터 4월까지의 발달과정은 부모의 精이 만나 膏의 형태로 잉기기 시작하여 血脈이 생기고 자궁에 착상한 胚가 되며 다음 胎가 되어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는 시기로 보이며, 5~7개월까지는 筋, 骨, 形의 형태적 요소가 발달하며 8~9개월에는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려는 조짐이 나타나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惡阻가 나타나는 시기인 2~4개월은 이후의 발달에 앞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시기인 것이다.

2) 馬王堆帛書 『胎產書』

한의학 문헌 가운데 태아의 10개월 발달을 다루고 있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馬王堆帛書의 『胎產書』¹⁴⁾가 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자.

一月名曰始形，飲食必精，酸羹必熟，無食辛腥，是謂纒貞。二月始膏，無食辛臊，居處必靜，男子勿勞，百節皆病，是謂始藏。三月始脂，……四月而水¹⁵⁾受之，乃使成血……五月而火受之，乃使成氣……六月而金受之，乃使成筋……七月而木受之，乃使成骨……八月而土受之，乃使成膚革……

九月而石受之，乃胎成毫毛……十月氣陳□□，以爲□¹⁶⁾

1개월은 始形이니 먹고 마시는 것이 반드시 정미로워야 하며 신맛이 나는 국을 먹되 반드시 익혀야 하며, 맵고 비린 것은 먹지 말아야 하니, 이를 일러 纒貞라 한다. 2개월은 始膏이니 맵고 누린 것을 먹지 말고 거처를 반드시 고요하게 해야 하며, 남자가 여자를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되니, 수고롭게 하면 백질이 모두 아프게 된다. 이를 일러 始藏이라 한다. 3개월은 始脂이며…… 4개월은 水를 얻어 血을 이루게 하며…… 5개월은 火를 얻어 氣를 이루게 하며…… 6개월은 金을 얻어 筋을 이루게 하며…… 7개월은 木을 얻어 骨을 이루게 하며…… 8개월은 土를 얻어 膚革를 이루게 하며…… 9개월은 石을 얻어 이에 胎가 毫毛를 이루고…… 10개월은……

위 내용을 살펴보면 10개월간의 발달 과정을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구간은 1~3개월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始形, 始膏, 始脂라고 일컫는 것에서 발달의 바탕이 갖추지는 시작단계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구간은 9개월까지의 기간으로, 태이는 水-火-金-木-土-石의 순서로 그 기운을 받아 각각 血-氣-筋-骨-皮膚-毫毛을 형성한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태아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이 틀을 바탕으로 형태적인 발달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胎產書』의 내용은 『脈經』의 경락 배속 내용과 함께 『諸病源候論』에서 종합적으로 서술되었으며, 이후의 문헌에서도 태아의 발달 내용과 배속 경락을 함께 다루었는데, 후대 문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크게 어긋나지 않아 후대 태아의 발달에 관한 지배적인 관점의 원형이 『胎產書』에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14) 長沙 馬王堆漢墓에서 출토된 내용 가운데 부인과 내용이 수록된 부분을 묶어 『胎產書』로 부른다. 『胎產書』는 한의학 역사상 현전하는 최초의 산부인과 전문서적이다.

15) 『諸病源候論』에서는 ‘水精’이라고 하였으며, 이후의 문헌에서도 이를 따랐다. 이는 나머지 火, 金, 木, 土, 石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1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p.781-802.

3) 『顛顛經』

『胎產書』의 내용과는 다른 결의 내용을 싣고 있는 『顛顛經』¹⁷⁾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달 과정을 설명했다.

一月爲胚,¹⁸⁾ 精血凝也, 二月爲胎, 形兆分¹⁹⁾也, 三月陽神爲三魂動以生也, 四月陰靈爲七魄靜鎮形也, 五月五行分藏安神²⁰⁾也, 六月六律定腑滋靈²¹⁾也, 七月精開竅通光明也, 八月元神具降真靈也, 九月宮室羅布以生人也, 十月氣足萬物成也.²²⁾

첫째 달에 胚가 되니 精血이 응치고, 둘째 달에 胎가 되니 形이 나뉘기 시작하며, 셋째 달에 陽神이 三魂이 되어 생을 動하고, 넷째 달에 陰靈이 七魄이 되어 形을 안정시키며(차분하게 가라앉히다), 다섯째 달에 五行이 나뉘어 臟이 神을 편안케 하고, 여섯째 달에 六律이 정해져 腑가 靈을 자양하며, 일곱째 달에 精이 구멍을 열어 光明에 통하고, 여덟째 달에 元神이 갖추어지고 眞靈을 드리우며, 아홉째 달에 자궁이 팽팽해져서 아이를 낳으려하고, 열 번째 달에 기가 족하여 만물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1개월째에는 혈이 응결한 형태의 胚가 되고, 2개월째에는 사람의 형상을 갖추는 胎가 되며, 3,4개월째에는 각각 魂과 魄이 작용하여 생이 動하고 形이 안정되며, 5, 6개월째에는 각각 五臟에

신이 안정되고 六律에 따라 靈을 자양하며, 7, 8개월째에는 각각 光明에 통하고 眞靈이 드리우며, 9개월째가 되면 자궁이 확장하고 아이가 나오기 좋은 방향으로 돌아놓는다. 『顛顛經』의 내용은 앞서 태아 발달 과정의 원형 가운데 하나인 『胎產書』의 내용과 차이가 있으나 전체 과정 가운데 惡阻가 빈발하는 2~4개월이 속하는 임신 초기 단계에서 태아가 사람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춘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4) 『脈經』

태아의 10개월 발달과정을 주도하는 경락을 배속시킨 최초의 내용은 『脈經』에 나오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婦人懷胎, 一月之時, 足厥陰脈養. 二月, 足少陽脈養. 三月, 手心主脈養. 四月, 手少陽脈養. 五月, 足太陰脈養. 六月, 足陽明脈養. 七月, 手太陰脈養. 八月, 手陽明脈養. 九月, 足少陰脈養. 十月, 足太陽脈養. 諸陰陽各養三十日活兒. 手太陽少陰不養者, 下主月水, 上爲乳汁, 活兒養母.²³⁾

부인이 임신하여 첫째 달에는 足厥陰脈이 기르고, 둘째 달에는 足少陽脈이 기르며, 셋째 달에는 手心主脈이 기르고, 넷째 달에는 手少陽脈이 기르며, 다섯째 달에는 足太陰脈이 기르고, 여섯째 달에는 足陽明脈이 기르며, 일곱째 달에는 手太陰脈이 기르고 여덟째 달에는 手陽明脈이 기르며, 아홉째 달에는 足少陰脈이 기르고 열달째에 足太陽脈이 기른다. 모든 음양(맥)이 각각 30일 동안 아이를 기른다. 手太陽脈과 手少陰脈은 (직접) 기르지 않는데, 아래로 月經을 주관하고 위로는 乳汁을 생성하여 아이를 살리고 어미를 기르기 때문이다.

30일을 한 달로 묶어 각 월별 발달을 주관하는

17) 『節巫顛顛經』이라고도 한다. 堯帝의 신하인 巫方이 지었다고 전해지며, 현존하는 비교적 초기의 소아과 전문서이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권2,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390.)

18) 『婦人大全良方』에서 인용한 부분에는 ‘胎胞’라고 되어 있다. 『景岳全書』에는 ‘胞胎’로 되어 있다.

19) 『婦人大全良方』에서 인용한 부분에는 ‘形成胚’라고 되어 있다. 『景岳全書』에는 ‘形始成胚’로 되어 있다.

20) 『婦人大全良方』과 『景岳全書』에는 ‘五月五行分五藏’이라고 되어 있어 ‘安神’의 내용이 빠져있다.

21) 『婦人大全良方』과 『景岳全書』에는 ‘六月六律定六腑’이라고 되어 있어 ‘滋靈’의 내용이 빠져있다.

22)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23) 深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p.464.

경락을 배속했는데, 그 시작은 厥陰脈 부터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경락이 번갈아가며 해당 월의 발달을 주관하는데, 12경맥 가운데 手太陽脈과 手少陰脈은 빠져있다. 그 이유는 이 두 경락이 산모의 월경과 유즙분비를 통해 임신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인데, 이후의 문헌에서 그 이유를 心脈이 군주의 위치에 尊함으로써 역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²⁴⁾ 心胞經을 手厥陰脈이라고 칭하는 대신 手心主脈 이라고 표현한 것은 手少陰脈을 대신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諸病源候論』

월별 발달에 따라 경락을 배속시킨 『脈經』의 내용은 이후 『諸病源候論』(610) 을 시작으로 『備急千金要方』, 『婦人大全良方』, 『景岳全書』, 『醫學入門』, 『東醫寶鑑』 등의 문헌에서 해당 월에 일어나는 태아의 발달 내용과 종합해서 언급되었는데, 먼저 『諸病源候論·妊娠候』의 내용을 살펴보자.

懷娠一月，名曰始形，飲食精熟，酸美受禦，宜食大麥，無食腥辛之物，是謂纔貞，足厥陰養之。足厥陰者，肝之脈也。肝主血，一月之時，血流澀，如不出，故足厥陰養之。²⁵⁾

임신 첫째 달은 이름 하여 ‘始形’으로, 음식은 정미롭고 익은 것을 먹어야 하고 신맛을 좋아하여 이로써 감당하며 마땅히 보리를 먹고 비린내 나거나 매운 음식은 먹으면 안 되니, 이 때 이른바 纔貞이 되며 足厥陰脈이 기른다. 足厥陰은 肝의 脈이다. 간은 血을 주하므로 첫째 달에 血의 흐름이 끊어지지 나오지 않을 것처럼 되므로 足厥陰이 기른다.

앞선 문헌에서 월별 발달 내용만 나오거나 해당 월에 배속된 경락이 나온 것과 달리, 『諸病源候論』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서술했다. 여기에서는 첫째

달을 가리켜 ‘始形’이라 했는데, 『胎產書』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諸病源候論』의 내용을 따른 『備急千金要方』과 『婦人大全良方』에서는 첫째 달을 일컬어 ‘始胚’라 했다. 그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혈이 끊어러워지고 영겨 사람의 형태를 가진 태아로 발달하는 시작단계로 보았다.

『諸病源候論』에서는 또한 1개월째를 ‘纔貞’이라고 해 비로소 ‘貞’해지는 때라고 보았는데, 이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才正’으로 보아 자질이 갖춰지는 때라고 말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첫째 달을 ‘始形’이라고 하여 사람으로서의 형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한 것과 바탕이 갖춰진다는 면에서 통한다. 이후 두 번째 달의 전체적인 내용은 첫째 달과 같은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때를 일컬어 ‘始膏’로서 藏의 시작으로 보았으며 태아의 精이 胞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했다. 태아 자체의 정이 생성된다는 것은 개별적인 인간의 근본이 마련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²⁶⁾ 다음으로 셋째 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妊娠三月，名始胎。當此之時，血不流，形像始化，未有定儀……是謂外象而變者也，手心主養之。手心主者，脈中精神，內屬于心，能混神。故手心主養之。²⁷⁾

임신 셋째 달은 일컬어 ‘始胎’라고 하며, 이때는 血이 흐르지 않으며 형상 形像이 분화하기 시작하며 정해진 바가 있지 않으므로 이른바 바깥의 象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 手心主脈이 기르며, 手心主는 맥 가운데 精神을 안으로 心에 속하게 하여 능히 神을 혼합한다. 고로 手心主가 기른다.

셋째 달은 ‘始胎’로서, 혈이 이미 흐르지 않는 고

24) 李順保 主編，中醫婦科學古代醫書合集(上冊)，北京，學苑出版社，2017，p.337.

25) 巢元方 撰集，丁光迪 主編，諸病源候論·校注，北京，人民衛生出版社，2000，p.1179.

26) 巢元方 撰集，丁光迪 主編，諸病源候論·校注，北京，人民衛生出版社，2000，p.1179. “妊娠二月，名曰始膏……是謂始藏也，足少陽養之，足少陽者，膽之脈也，主于精，二月之時，兒精成于胞裏，故足少陽養之。”

27) 巢元方 撰集，丁光迪 主編，諸病源候論·校注，北京，人民衛生出版社，2000，pp.1179-1180.

정된 상태이며, 태아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때인데, 정해진 바가 없어서 산모가 보고 듣는 대로 영향을 받으므로 태교의 적기로 들었다.²⁸⁾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手心主脈의 역할을 手心主가 안으로 心과 맺는 관계로서 태아의 神을 통합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의 출산까지의 기간은 『胎產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기본적인 틀이 갖추지는 1~3개월과 달리 보다 신체적인 발달이 일어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먼저 4개월째에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자.

妊娠四月，始受水精，以成血脈……是謂盛榮，以通耳目，而行經絡……是手少陽養之。手少陽者，三焦之脈也，內屬於腑。四月之時，兒六腑順成，故手少陽養之。²⁹⁾

임신 넷째 달은 水精을 받아 血脈이 형성됨으로써…… 이른바 榮이 盛해지며 귀와 눈이 통하고 경락이 행하니…… 이것이 手少陽의 기름이다. 手少陽은 삼초의 맥으로 안으로 부에 속하므로 넷째 달에는 아이의 육부가 순차적으로 생겨나므로 手少陽이 기른다.

넷째 달부터 아홉째 달까지는 『胎產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각각 水, 火, 金, 木, 土, 石精을 받아 血脈-氣-筋-骨-九竅-皮毛의 순서로 태아의 신체가 온전하게 갖추어 지는 과정을 거쳐 열 달 재가 되면 五臟이 모두 갖추치고 六腑가 가지런히 통하며 天地의 기운을 단전에 받아 태아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

고 했다.³⁰⁾ 4개월과 5개월째에 水-火의 축이 생성된 후 6개월~9개월까지 나머지 신체가 점점 발달하여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 『備急千金要方』, 『婦人大全良方』, 『景岳全書』, 『醫學入門』, 『東醫寶鑑』에서 다시 반복되었다.

6) 『備急千金要方』

『諸病源候論』(7C)에 이어 『備急千金要方』에서도 태아의 월별 발달 과정 내용이 배속 경락과 함께 설명되었다.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나,³¹⁾ 차이가 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달은 ‘始胚’로, 이때 陰陽이 새로이 합해 胎가 된다고 말했고,³²⁾ 둘째 달은 ‘始膏’로, 胎가 맺히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했으며,³³⁾ 셋째 달에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형태가 정해진다고 보았다.³⁴⁾ 3개월째의 내용 가운데 주의사항으로 ‘無悲哀思慮驚動’가 추가되어 있어 3개월째에 특히 감정의 동요를 주의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때에 비해 3개월째가 감정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임을 의미한다.³⁵⁾ 또한 산모가 경험할 수 있는 증상으로 ‘卒驚恐憂愁愠怒喜頓仆’을 언급했는데, 이 또한 감정적으로 예민한 이 시기의 특성과 관련 있

28) 巢元方 撰集，丁光迪 主編。諸病源候論。校注。北京。人民衛生出版社。2000。pp.1179-1180。“欲得男者，操弓矢，射雄雞，乘肥馬于田野，觀虎豹及走犬。其欲得女者，則着簪珂環佩，弄珠玕。欲令子美好端正者，數視白璧美玉，看孔雀，食鯉魚。欲令兒多智有力，則燂牛心，食大麥。欲令子賢良盛德，則端心正坐，清虛和一，坐無邪席，立無偏倚，行無邪徑，目無邪視，耳無邪聽，口無邪言，心無邪念，無妄喜怒，無得思慮，食無邪饗，無邪臥，無橫足，思欲果瓜，啖味酸菹，好芬芳，惡見穢臭，是謂外象而變者也。”

29) 巢元方 撰集，丁光迪 主編。諸病源候論。校注。北京。人民衛生出版社。2000。p.1181.

30) 巢元方 撰集，丁光迪 主編。諸病源候論。校注。北京。人民衛生出版社。2000。p.1184。“妊娠十月，五臟俱備，六腑齊通，納天地氣于丹田，故使關節人神鹹備，然可預脩滑胎。”

31) 『備急千金要方·養胎』에서는 ‘徐之才逐月養胎方’임을 밝히고 시작했고, 해당 경락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안 된다는 주의를 추가했으며, 산모가 주의해야 할 사항 또한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월에 한증과 열증이 있을 경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지 기술해 惡阻에 관한 병리적인 관점이 덧붙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32) 孫思邈 著，李景榮 等 校釋。備急千金要方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2014。p.27。“妊娠一月名始胚…… 妊娠一月，陰陽新合爲胎。”

33) 孫思邈 著，李景榮 等 校釋。備急千金要方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2014。p.28。“妊娠二月名始膏…… 兒精成于胞裏。”

34) 孫思邈 著，李景榮 等 校釋。備急千金要方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2014。p.28。“妊娠三月名始胎…… 妊娠三月爲定形，有寒大便青，有熱小便難，不赤即黃，卒驚恐憂愁愠怒喜頓仆。”

35) 孫思邈 著，李景榮 等 校釋。備急千金要方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2014。p.28。“其經手心主內屬於心，無悲哀思慮驚動。”

으며, 이러한 시기적 특성은 앞서 언급했던 3개월째를 주관하는 手心主脈의 속성, 즉 ‘手心主者, 脈中精神, 內屬於心, 能混神’과 관련이 깊다.

이후 4개월과 5개월의 내용은 앞서 나온 『諸病源候論』의 발달 내용과 동일한데, 산모가 겪는 증상을 언급한 부분에서 각각 ‘妊娠四月, 有寒心下愠愠, 欲嘔膈滿, 不欲食’과 ‘妊娠五月, 有熱苦頭眩心亂嘔吐’의 내용이 惡阻와 유사하다. 『備急千金要方』은 월별로 나타나는 증상을 한열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는 처방을 제시했는데, 4월의 증상은 한중에 속하고 5월의 증상은 열증에 속해 있어 惡阻가 월별로 한열을 달리한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備急千金要方·妊娠誤造第二』에서는 임신 惡阻의 대표 처방으로 半夏와 茯苓을 주된 약물로 하는 半夏茯苓湯, 과 茯苓丸을 제시했는데,³⁶⁾ 4월에 제시한 菊花湯,³⁷⁾ 調中湯³⁸⁾과 5월에 제시한 安中湯,³⁹⁾ 阿膠湯⁴⁰⁾ 중 茯苓이 포함된 처방이 없고 半夏는 菊花

湯에만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4개월과 5개월째에 기재된 증상이 같은 惡阻의 증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의 내용 외에도 『備急千金要方』에는 기존의 『胎產書』로부터 『諸病源候論』을 거쳐 『備急千金要方』으로 이어지는 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妊娠一月始胎, 二月始膏, 三月始胞, 四月形體成, 五月能動, 六月筋骨立, 七月毛髮生, 八月臟腑具, 九月穀氣入胃, 十月諸神備, 日滿即產矣.⁴¹⁾

임신 1개월은 始胎이고, 2개월은 始膏이고, 3개월은 始胞이고, 4개월에 형체가 만들어지고, 5개월에 움직일 수 있게 되며, 6개월에 筋骨이 서게 되고, 7개월에 모발이 생기고, 8개월에 臟腑가 갖춰지고, 9개월에 穀氣가 (胎兒의) 胃로 들어가고, 10개월에 모든 神이 갖춰져서 날이 차면 태어난다.

이러한 내용은 『聖濟總錄』⁴²⁾과 『景岳全書』⁴³⁾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1개월째에 ‘胚’가 되고, 2개월째에 ‘胎’가 되며, 3개월째에 血脈이 생긴다고 본 점에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여기에 나온 10개월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5개월째를 기준으로 앞뒤가 다른 종류의 발달임을 알 수 있다. 즉, 여기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1~4개월까지를 한 구간으로, 6~9개월까지를 또 다른 구간으로 임의로 나뉠 수 있는데, 첫 구간은 태아가 사람으로서의 기본 바탕을 갖추는 과정이며 둘째 구

黃芩(各二兩), 旋復花(二合), 吳茱萸(七合), 麥冬(一升).”

36)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4. p.26. “半夏茯苓湯, 治妊娠阻病, 心中憤悶, 空煩吐逆, 惡聞食氣, 頭眩體重, 四肢百節疼煩沉重, 多臥少起, 惡寒, 汗出, 疲極黃瘦方. 茯苓丸, 治妊娠阻病, 患心中煩悶, 頭眩體重, 憎聞飲食氣, 便嘔逆吐悶顛倒, 四肢垂弱, 不自勝持, 服之即效. 先服半夏茯苓湯兩劑, 後服此方.”

37)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4. p.29. “妊娠四月, 有寒, 心下愠愠, 欲嘔, 胸膈滿, 不欲食. 有熱, 小便難, 數數如淋狀, 臍下苦急, 猝風寒, 頸項強痛, 寒熱或驚動身軀, 腰背腹痛, 往來有時, 胎上迫胸, 心煩不得安, 猝有所下, 宜服菊花湯. 菊花湯方, 菊花(雞子大, 一枚), 麥門冬(一升), 大棗(十二枚), 人參(一兩半), 甘草 當歸(各二兩), 麻黃 阿膠(各三兩), 半夏(四兩), 生薑(五兩).”

38)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4. p.29. “調中湯, 若曾傷四月胎者, 當預服此方. 白芍 生薑(各四兩), 濃朴 枳實 生李根白皮 白朮 柴胡(各三兩), 續斷 川芎 甘草(各一兩), 當歸(一兩半), 烏梅(一升).”

39)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4. p.29. “安中湯, 若曾傷五月胎者, 當預服此方. 黃芩(一兩), 當歸 川芎 乾地黃 人參(各二兩), 甘草 芍藥(各三兩), 生薑(六兩), 麥冬(一升), 五味子 大麻仁(各五合), 大棗(三十五枚).”

40)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4. p.29. “妊娠五月多熱, 苦頭眩, 心亂嘔吐, 有寒, 苦腹滿痛, 小便數, 猝有恐怖, 四肢疼痛, 寒熱, 胎動無常處, 腹痛悶欲欲仆, 猝有所下, 宜服阿膠湯. 阿膠湯方, 阿膠(四兩), 人參(一兩), 生薑(六兩), 當歸 芍藥 甘草

41)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4. p.31.

42) 趙佶 編.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711. “小兒受氣在娠, 一月胚, 二月胎, 三月血脈生, 四月形體成, 五月動, 六月筋骨立, 七月毛髮生, 八月臟腑具, 九月穀氣入胃, 十月百神備而生.”

43)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景岳全書, 서울. 범인문화사. 2007. p.647. “孫真人曰 凡兒在胎, 一月胚, 二月胎, 三月有血脈, 四月形體成, 五月能動, 六月諸骨具, 七月毛髮生, 八月臟腑具, 九月穀入胃, 十月百神備則生矣.”

간은 태아의 신체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기준이 되는 5번째 달은 4개월까지 갖춰진 기혈이 비로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전환기로 볼 수 있다.

7) 『小兒衛生總微論方』

다음으로 『小兒衛生總微論方』(13C)에서는 앞선 『顛顛經』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실고 있다.

聖經⁴⁴⁾言, 方其受授之初, 一月血凝, 二月胚胎兆, 三月陽神爲魂, 四月陰靈爲魄, 五月五行分五臟, 六月六律定六腑, 七月七精開竅, 八月八景具全, 九月氣足象成, 十月百神集備, 至日滿而生也.⁴⁵⁾

『聖濟經』에서 말하기를, 그 주고받음의 첫째 달에 血이 엉기고, 둘째 달에 胚胎의 조짐이 있고, 셋째 달에 陽神이 魂이 되고, 넷째 달에 陰靈이 魄이 되고, 다섯째 달에 五行이 五臟을 나누고, 여섯째 달에 六律이 六腑를 정하고, 일곱째 달에 七精이 구멍을 열고, 여덟째 달에 八景이 갖춰져 온전해지고, 아홉째 달에 氣가 충족하여 모습이 이뤄지고, 열달째에는 온갖 神이 모여 갖춰지니, 날수가 차면 태어난다.

그 출처를 『聖濟經』으로 밝힌 위의 내용에서 1~7개월까지의 내용은 『顛顛經』과 매우 유사하다. 즉, 첫째 둘째 달에는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고, 셋째 넷째 달에는 각각 魂魄이 생기며, 다섯 여섯째 달에는 각각 五臟과 六腑가 자리 잡으며, 일곱째 달에 精이 구멍을 연다고 한 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강의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도 첫 두 달에 태아로 분화되고 이후의 두 달 간 魂魄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4개월 동안 태아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며. 이후 5개월간은 이를 바탕으로 태아가 온전한 모습을 갖춰 산모의 뱃속에서 나올 준비가 될 때까지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小兒衛生總微論方』에 나오는 또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又云一月如珠露, 二月若桃花, 三月形象成, 四月男女分, 五月府藏具, 六月筋骨全, 七月魂生而動左, 八月魄長而動右, 九月三轉身, 十月足而生, 此未知其所出.

또한 이르기를, 1개월은 구슬이나 이슬과 같고, 2개월은 복숭아꽃 같으며, 3개월에는 刑象이 만들어지고, 4개월에는 남녀가 구분되고, 5개월에는 臟腑가 갖춰지고, 6개월에는 筋骨이 온전해지고, 7개월에는 魂이 생하여 左로 움직이고, 8개월에는 魄이 長하여 右로 움직이고, 9개월에는 몸이 세 번 돌고 10개월에는 가득 차서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

여기에서는 첫째 달의 태아의 모습을 구슬이나 이슬의 모습에 빗대어 묘사하고, 둘째 달에는 붉은 색의 복숭아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달에 血脈이 생긴다고 본 『文子』의 ‘二月血脈’의 내용과 통한다. 셋째 달에는 刑象이 이뤄지고 넷째 달에 성별이 구분된 이후 5~6개월째에는 臟腑와 筋骨이 갖추어져 신체적 발달이 일어나고 7~8개월째에 각각 魂魄이 작용한다고 보았는데, 앞서 ‘三月陽神爲魂, 四月陰靈爲魄’이라고 한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3,4개월과 7,8개월의 내용을 魂魄의 體用관계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이후 『婦人大全良方』에 등장하는 『五臟論』⁴⁶⁾의 내용과 유사하나, 『五臟論』에서는 3개월째에 성별이 나뉘고 4개월째에 형상이 갖춰진다고 보아 3,4개월째에 일어나는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 나오고, 5개월째에 筋骨이 이루어지고 6개월째에 모발이 생긴다고 보았다. 『東醫寶鑑』에도 이와 유사한

44) 『聖濟經』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중국 송나라 趙佶이 편찬하고, 五親가 주석하여 1118년 간행된 의서로서 『宋徽宗聖濟經』이라고도 한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권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57-358.)

45)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46) 중국 후한의 張機가 편찬한 의서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권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225.)

내용이 나오는데, 3개월째에 형체가 갖춰지고 4개월째에 성별이 나뉜다고 본 것은 『小兒衛生總微論方』과 같으나 1개월째에 ‘胎如酪’하고 2개월째에 ‘成其果而果李相似’하며 5개월째에 ‘筋骨成’하고 6개월째에 ‘鬢髮生’한다고 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7월과 8월에 태아의 左右手が 움직인다고 한 부분이 『東醫寶鑑』에서는 좌우가 뒤바뀌어있다.

8) 『婦人大全良方』

태아의 十月養胎 내용은 『婦人大全良方』(13C)에도 나오는데 상당 부분이 『諸病源候論』과 겹치므로 원문은 생략했다. 여기에서는 월별 발달내용과 배속하는 경락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며 『諸病源候論』의 내용을 재확인했는데, 기존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3개월과 4개월에 手少陰과 手太陽이 태아의 발달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이유를 ‘屬手少陰心、手太陽小腸者，以君主之官，無爲而尊也’로 설명했다. 이외에 『婦人大全良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又五臟論有稱者婆者，論一月如珠露，二月如桃花，三月男女分，四月形象具，五月筋骨成，六月毛髮生，七月游其魄，兒能動左手，八月游其魄，兒能動右手，九月三轉身，十月受氣足。⁴⁷⁾

또한 『五臟論』에 者婆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어 논하기를 1개월은 구슬이나 이슬과 같고, 2개월은 복숭아꽃과 같으며, 3개월에 남자가 구분되고 4개월에 형상이 갖춰지며, 5개월에 곤굴이 이뤄지고, 6개월에 모발이 자라며, 7개월에 魄이 노닐어 아이가 왼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며, 8개월에 魄이 노닐어 아이가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9개월에 몸을 세 번 굴러 10개월에 氣를 족히 받는다.

여기에서 인용된 『五臟論』은 張仲景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 문헌이다. 이

47) 李順保 主編. 中醫婦科學古代醫書合集(上冊). 北京. 學苑出版社. 2017. p.337.

에 따르면 1개월째에 이슬처럼 맺히고 2개월째에 복숭아꽃과 같이 되며, 3개월째에 성별이 나뉘고, 4개월째에 형상이 갖춰지며, 5, 6개월째에 신체적인 발달이 이뤄지는데, 첫 두 달의 내용이 앞서 나온 『小兒衛生總微論方』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小兒衛生總微論方』에서는 3개월에 형상이 이루어지고 4개월에 남자가 구분된다고 해 순서를 거꾸로 보았고, 5개월에 臟腑가 갖추어지고, 6개월에 筋骨이 온전해 진다고 했다. 5, 6개월째에 신체적인 발달이 일어난다는 관점은 동일하나, 3개월과 4개월째에 일어나는 성별의 나뉨고 신체적 기틀이 갖춰지는 일의 순서가 다른데, 형상이 갖춰지기 전에 먼저 성별부터 나뉜다고 본 『五臟論』의 관점이 더 타당해 보인다.⁴⁸⁾ 이 내용은 『景岳全書』에서 그대로 인용되었다.

9) 『醫學入門』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胎產書』의 월별 발달과 『脈經』의 배속 경락을 종합한 내용이 주로 이어지면서 이와 함께 『顛顛經』이나 『五臟論』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왔다. 후대로 갈수록 추가적인 내용이 덧붙이기도 했는데, 『醫學入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그 설명이 전에 비해 더욱 상세하다.

一足厥陰二少陽…… 九日之後，次九又九，凡二十七日，即成一月之數，竅自然凝成一粒，如露珠然。乃太極動而生陽，天一生水，謂之胚，足厥陰脈所主也……⁴⁹⁾

첫째 달은 足厥陰, 둘째 달은 足少陽인데…… 9일 후에 다시 9일이 지나고 또 9일이 지나 27일이 되면 임신 1개월이 되어 구멍은 이슬방울처럼 저절로 하나의 입자가 되어 마치 이슬방울처럼 된다. 이것이 ‘太極이 움직여 陽이 생긴다’는 것이고

48) 성별이 나뉜 후 이를 따라 형체가 발달한다는 내용은 『醫學入門』의 3개월째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李梴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743.)

49) 李梴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487.

‘天一生水’의 뜻으로, 일컬어 ‘胚’라고 하니, 足厥陰脈이 주하는 바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첫째 달에 이슬방울처럼 맺힌다는 결과를 말하는 대신, 수정 이후 여기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슬방울의 모습으로 맺히는 이 시기의 태아의 발달을 일컬어 ‘胚’라고 명시했다. ‘胚’의 글자적 의미가 잔을 엮어놓은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태아가 자궁벽에 붙어있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이다. ‘胚’가 내포하는 의미는 ‘太極動而生陽’하고 ‘天一生水’인데, 이 내용은 『東醫寶鑑』에서도 따랐다.

又三九二十七日 卽二月數, 此露珠變成赤色, 如桃花瓣子. 乃太極靜而生陰, 地二生火, 謂之暉, 足少陽脈所主也. 此月腹中或動或不動, 猶可狐疑, 若吐逆思酸, 名曰惡阻, 有孕明矣. 或偏嗜一物, 乃一藏之虛, 如愛酸物, 乃肝藏止能養胎而虛也.⁵⁰⁾

또한 3에서 9를 곱하여 또 27일이 지나면 곧 임신 2개월이다. 이때에 이슬방울이 복숭아꽃처럼 벌겋게 변하는데, 이것이 ‘太極이 고요하여 陰이 생긴다’는 것이고 ‘地二生火’의 뜻으로, 일컬어 ‘暉’이라고 한다. 이 달에는 뱃속이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기도 해서 아직 임신을 확실하지 못하는데, 만약 토하고 구역질이 나며 신 것이 생각나면, 이것을 惡阻라고 하며, 임신이 분명하다. 혹은 한 가지 음식만 유달리 좋아하기도 하는데, 한 장기가 허하기 때문이다. 가령 신 것을 좋아하는 것은 간장이 胎를 길러 허해진 것이다.

둘째 달에는 지난달에 맺힌 胚가 ‘太極靜而生陰’하고 ‘地二生火’하는 ‘暉’이 되어 마치 복숭아꽃과 같이 붉게 변한다. 사전적으로 ‘暉’은 ‘혼돈’이나 ‘만두’의 의미가 있다.⁵¹⁾ 2개월 된 태아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는 1월에 陽이 생기고 2월에 陰이 생겨 陰陽이 분화되었으나, 아직은 뒤섞여 있어 성별도 나뉘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暉’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惡阻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는데, 태아의 시기에 따른 발달의 맥락에서 惡阻의 발생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여기에서는 惡阻가 구역질이 나면서 신 것을 먹고 싶어 하고 한 가지 음식만 찾는 증상으로 드러남을 말했으며,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인병기를 간략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임신으로 인한 가시적인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2개월째에 惡阻가 임신을 확진할 수 있는 징후임을 말하기도 했다.

三四胞絡三焦決, 又三九二十七日, 卽三月數. 百日間變成男女形影, 如清鼻涕中, 有白絨相似, 以成人形. 鼻與雌雄二器先就分明, 其諸全體隱然可悉, 斯謂之胎. 乃太極之乾道成男, 坤道成女, 手厥陰脈相火所主. 胎最易動……⁵²⁾

셋째와 넷째 달은 心包絡과 三焦脈이 흘러서 또 3에서 9를 곱하여 27일이 지나면 곧 임신 3개월이다. 100일 사이에 변하여 남녀가 되는데, 멀건 콧물 속에 흰 실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形이 갖추어진다. 코와 성기가 먼저 분명해지고 전체가 은연중 다 갖추어진다. 이것을 ‘胎’라고 하는데, 곧 ‘太極의 乾道는 남자가 되고 坤道는 여자가 된다’는 뜻이다. 이때의 胎가 가장 잘 동하는데……

3개월째가 되면 코와 성기를 시작으로 사람의 모습이 갖추어진다. 太極의 건도와 곤도에 따라 성별이 나뉘면, 이에 따라 형체도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胎’이며, 그 의미는 ‘太極之乾道成男, 坤道成女’이다.

50) 李榭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489.

51) 이가원, 안병주 감수.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p.2654.

52) 李榭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489.

넷째 달부터 10개월까지의 내용은 『胎產書』와 『脈經』의 설명을 중심으로 『諸病源候論·妊娠候』에서 발전시킨 내용과 유사하나, 『醫學入門』에서는 『五臟論』의 내용을 종합하여 서술해 차이를 보인다. 이 내용은 이후 『東醫寶鑑』에서 인용했다.

10) 『東醫寶鑑』

『東醫寶鑑』에서는 앞선 『醫學入門』의 내용을 인용해 태아의 발달 과정을 설명했는데 거의 동일하여 재차 반복하지 않았다. 그 외에 『東醫寶鑑』에서 관련 내용이 「身形」편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聖惠方』⁵³⁾曰 天地之精氣 化萬物之形. 父之精氣 爲魂. 母之精氣 爲魄. 一月懷其胎 如酪, 二月成其果而果李相似, 三月有形像, 四月男女分, 五月筋骨成, 六月鬢髮生, 七月遊其魂, 而能動右手, 八月遊其魄, 而能動左手, 九月三轉身, 十月滿足, 母子分解.⁵⁴⁾

『聖惠方』에서 말하기를, 천지의 精氣는 만물의 형을 화생한다. 아버지의 精氣는 魂이 되고, 어미의 정기는 魄이 된다. 첫째 달에는 품은 태가 마치 타락 같고, 둘째 달에는 열매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마치 자두 같고, 셋째 달에는 사람의 모습을 이루고, 넷째 달에는 남녀가 구분되고, 여섯째 달에는 머리털이 생기고, 일곱째 달에는 그 魂이 노닐어 오른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여덟째 달에는 그 魄이 노닐어 왼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아홉째 달에는 몸을 세 번 구르고 10개월이 다 차면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1개월과 2개월째에 각각 타락이나 자두 열매 같다고 한 것은 『小兒衛生總微論方』, 『婦人大全良方』, 『醫學入門』에서 珠露 및 桃花라고 한 것과 유사한 의미이다. 처음에는 멀쩡고 끈적이는 형상으로 영키

어 있다가 2개월째에 접어들어 조금씩 분화하고 붉게 변하는 胚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앞선 내용에서 먼저 성별이 구분된 후 형상이 갖추어진다고 본 것과는 달리, 형상이 먼저 갖추어진 후 성별이 구분된다고 보아 3개월과 4개월째에 일어나는 일의 순서를 뒤바꿔 보았는데, 앞서 『醫學入門』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형체는 성별이 구분되면 그에 따라 코와 생식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갖추게 되므로, 형체가 갖추지기 전에 성별이 먼저 나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개월까지 '胎'가 갖춰지면, 5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보다 온전한 모습을 갖춰서 10개월째에 나올 수 있도록 발달이 진행된다. 1개월에서 4개월까지를 胎의 발달 단계로서의 한 구간으로 보고 5개월에서 9개월까지를 보다 신체적인 발달에 치중된 또 하나의 구간으로 본 기존의 논의와 다르지 않다. 위의 발달 내용은 『小兒衛生總微論方』 및 『婦人大全良方』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하나 각각의 원문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小兒衛生總微論方』과 『婦人大全良方』의 해당 부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身形」편 외에도 「小兒」편에서 3개월째에 일어나는 臟의 생성과정을 간략히 설명했는데, 본고의 논의를 벗어나므로 생략했다.

Ⅲ. 고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惡阻의 가장 큰 특징인 시기성, 즉 특정한 시기에 발생하여 특정한 시기가 되면 자연히 소실된다는 점이 빠져있다는 데에 착안하여 태아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의학적 관점에서 10개월간의 발달 과정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발달만이 아니라 태아의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발달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기 별 태아의 발달과 惡阻의 발생간의 관계를 고찰해보았다.

1. 발달 단계의 분류

지금까지 문헌에 나온 10개월간의 태아 발달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3) 『太平聖惠方』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나, 『太平聖惠方』에는 이 내용이 없다.

54) 許浚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1. p.201.

먼저 1기는 1개월에서 3,4개월까지로 胎로서 발달의 단초가 되는 틀이 갖춰지는 시기였고, 2기는 4,5개월에서 8,9개월까지로 태아가 본격적으로 신체가 발달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형태가 발달하는 시기였으며, 3기는 9~10개월째로 발달을 마친 태아가 산모의 체외로 나올 준비를 하는 시기였다. 다만 『顛顛經』과 『小兒衛生總微論方』의 내용은 두 달씩 짝을 이루는 경향이 있어 앞서 제시한 세단계의 구분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초기 4개월간은 태아가 분화되어 魂魄이 생겨나고, 뒤의 5~6개월 동안은 신체적 발달이 두드러져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임신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1) 1기 (1개월~3,4개월): 胎시기

1기는 잉태 이후 胎로 분화하기까지의 기간이다. 수정의 결과로 뭉친 덩어리가 분화하면서 包안에 자리를 잡고, 血이 돌아 붉게 변하는데, 이때에 비로소 대략적인 사람의 모습을 갖추며 독자적인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 주로 3,4개월째가 되면 산모가 보고 듣는 바에 따라 태아가 변한다고 보아 태교를 강조했으며, 성별이 비로소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 주요한 특성이 胎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본고에서는 이 시기를 ‘胎시기’라고 명명했다.

胎시기의 발달을 주관하는 經絡은 足厥陰脈, 足少陽脈, 手心主脈으로, 각각 속하는 臟腑의 역할에 따라 태아의 발달을 주도한다. 즉, 足厥陰脈은 肝에 속해 血에 작용하여 그 흐름을 느리게 해 배아로 멈추지도록 하고, 足少陽脈은 膽에 속해 태아의 精을 생성하고, 手心主脈은 心에 속해 태아의 神을 통합한다. 手心主脈의 작용으로 인하여 태아 고유의 의식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醫學入門』에 따르면, 첫째 달에 太極의 움직임으로 먼저 陽이 생겨나고, 둘째 달에 太極의 고요함으로 陰이 생겨나며, 셋째 달에 이르면 太極의 乾道 또는 坤道가 작용하여 태아의 성별이 갈린다. 즉, 이 시기의 일어나는 변화의 원리는 太極의 변화로 설명되는데, 혼돈, 즉 수정된

직후의 미분화단계이던 상태가 陰陽으로 분화함에 따라 점차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점차 산모와 다른 개별적인 존재로 발달해가며 독자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神의 생성과 발달에 관한 『靈樞·本神』에서 “天之在我者, 德也, 地之在我者, 氣也, 德流氣薄而生者也.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⁵⁵⁾라 하여 분화된 陰陽의 충돌에 의해 神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

2) 2기 (4,5개월~8,9개월): 발달기

2기는 발달의 단초를 기반으로 태아의 형태적, 기능적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간이다. 이때에 태아의 血脈과 氣가 갖춰지며 筋, 骨, 九竅, 皮, 毛가 水-火-金-木-土-石의 精氣를 받음으로써 발달하는데, 水와 火가 먼저 하나의 축을 이뤄 血脈과 氣가 갖춰지면, 이로써 나머지 발달이 이뤄진다. 2기에 접어들면 대체로 惡阻가 자연히 소실되며, 이 시기 신체적 발달에 말미암아 태아의 부피가 커져 산모의 배가 급격히 커진다.

이 시기의 발달을 주관하는 經絡은 手少陽脈, 足太陰脈, 足陽明脈, 手太陰脈, 手陽明脈, 足少陰脈으로, 手少陽脈이 작용하는 4개월에는 태아의 六腑가 순차적으로 생기고, 足太陰脈이 작용하는 5개월에는 태아의 四肢가 생겨나고, 足陽明脈이 작용하는 6개월에는 태아의 口目이 생겨나고, 手太陰脈이 작용하는 7개월에는 태아의 皮毛가 자라고, 手陽明脈이 작용하는 8개월에는 태아의 九竅가 모두 생겨나고, 足少陰脈이 작용하는 9개월에는 태아의 미세한 脈까지 모두 생겨난다.

3) 3기 (9~10개월): 출산 준비기

출산에 임박한 3기에는 태아가 이미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五臟六腑가 모두 자리를 잡아 天地로부터 丹田으로 氣를 모을 수 있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모든 관절이 발달하고 사람으로서의 神을 온전히 갖췄다고 본 것이다.⁵⁶⁾ 그리하여 태아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56) 巢元方 撰集,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 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1184. “妊娠十月, 五臟俱備, 六腑齊通,

는 출산에 걸맞은 자세를 취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때가 되면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

2. 惡阻와 胎시기의 관계

惡阻는 2~4개월에 보통 나타나므로 임신의 첫 발달 단계인 1기, 즉 胎시기에 발생함을 앞서 언급했다. 胎시기에 태아에게 일어나는 특징적인 발달은 성별이 나뉘고, 膏나 胚의 형태에서 사람으로서의 형체가 갖춰진 胎로 분화되며, 太極의 분화와 手心主의 작용에 따라 神이 생겨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胎시기의 발달적 특성이 惡阻의 발생과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1) 胎의 의미

‘胎’는 月(肉)과 台가 합쳐진 글자로 台는 三台星을 말하는데, 삼태성은三公(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지위를 뜻한다. 임금의 뜻을 받아 실행하는三公을 의미하는 별의 이름이 뱃속의 아이,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3개월째의 아이를 의미하는 ‘胎’를 구성한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醫學入門』에서 ‘胎’의 전 단계로 언급한 ‘胎’과 ‘胚’의 글자적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胎’에서 ‘軍’의 의미가 ‘전차 속에 있는 사람’으로, 包 안의 아이의 모습을 형상화 것이나, ‘胚’에서 ‘丷’가 잔을 얹어놓은 모습이 형상화된 글자라는 점과 비교해보았을 때 ‘胎’는 이렇듯 단순히 자궁 속 태아의 모습을 묘사하는 글자가 아니라 임금의 뜻, 즉 하늘의 뜻인 神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혼돈 상태이던 太極이 乾坤으로 나뉘어 성별이 구분되고, 분화된 陰陽의 기운으로 인해 새로운 의식이 생겨난다는 의미로서 ‘胎’를 설명한 내용과도 부합한다.⁵⁷⁾ 이러한 내용에서 胎시기의 가장 큰 특징을 독자적인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3개월째에 산모의 몸 안에 두 개의 개별적인 의식이 공존하는 셈이다.

2) 惡阻의 발생과 胎

惡阻의 증상은 惡心, 欲嘔吐, 不能食, 惡聞食氣, 擇食, 欲啖鹹酸果實, 心中憤悶, 頭眩, 懈惰不欲執作, 多睡少起, 四肢百節疼煩沈重, 口中無味 등으로 음식물에 민감해져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거나, 구역질을 하거나, 먹기를 거부하거나, 특정한 맛을 선호하는 증상이 주되다. 이와 같은 惡阻의 증상이 단지 脾胃기능의 실조로 인한 구토 증상과 다른 점은 惡阻를 경험하는 와중에도 산모에게 식욕이 있다는 점과 음식 전체에 관한 거부가 아닌 특정한 맛에 대한 산모의 호불호가 겉으로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으로, 이는 心의 작용을 드러낸다. 따라서 기존에 惡阻의 원인을 脾胃기능의 실조에서만 찾은 관점은 惡阻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임신 중 惡阻의 脾胃증상은 心의 영향으로 인한 脾胃의 반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좋고 싫음이 예민해지는 시기에 惡阻의 증상이 두드러지는 것인데, 이때는 바로 心이 작용하는 때로서 手心主脈이 주관하는 3개월째에 해당한다. 여러 문헌에서 살펴본 결과 3개월째는 胎가 발달하는 시기로서, 사람으로서의 기질이 갖춰지고 독자적인 의식이 생기는 때였으며, 이로써 산모의 몸 안에 산모 자신의 의식 외의 다른 의식이 공존해 결국 산모와 태아의 神이 맞닥뜨리는 시기로 볼 수 있었다.

산모의 의식과 태아의 의식이 최초로 맞부딪치는 시기에 惡阻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惡阻의 중심에 대상에 관한 수용 또는 거부를 결정하는 心이 있다면, 이 心의 관심사가 음식물을 비롯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공존하는, 독자적인 의식을 가진 태아를 향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惡阻의 핵심 증상인 ‘惡心’⁵⁸⁾의 글자적 의미가 말 그대로 ‘미워하는 마음’인 것을 대상에 관한 心의 거부반응이 두드러지는 惡阻의 양상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惡阻가 일어나는 원인을 단순히 脾胃 실조나 痰飲 등에 한정

納天地氣于丹田, 故使關節人神皆備, 然可預脩滑胎.”

57) 李樾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487-1488

58) 許浚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1. p.1649. “惡阻, 謂有孕而惡心, 阻其飲食者, 是也.(丹心)”

짓기 어렵다.

이처럼 惡阻는 心이 활발히 작용하는 3개월째에 두드러지다가 4~5개월째가 되면 자연히 소실하는 경향이 있다. 이후에도 산모의 의식이 태아의 의식과 공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처음 맞닥뜨렸을 때의 충격이 적응을 통해 점차 완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胎 시기의 특성이 산모와 태아의 心을 매개로 한 연결에서의 의식의 충돌이므로 그 연결을 전제된 태교의 효과가 크며 동시에 산모의 몸에서도 그 만남으로 인한 반응이 드러나는 때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惡阻를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으로 당시 세속에서 흔히 쓰이던 말 가운데 ‘惡字’가 있었다.⁵⁹⁾ 여기에서 ‘字’의 사전적인 의미가 암컷, 기르다, 낳다 등인 것을 고려하면, 당시에 이미 惡阻가 임신 상황에서의 어떤 불화에 대한 산모 측의 반응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3) 惡阻의 原因에 대한 새로운 관점

지금까지 惡阻의 발생이 태아의 발달과정 상 특정한 시기와 관련이 깊음을 밝혔다. 태아의 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에 산모의 의식과 처음 만남으로써 두 의식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맥락에서 바라본 것인데, 이는 惡阻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에 비해 시기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惡阻를 산모의 육체적 측면 뿐 아니라 神의 측면에서 유발되는 반응으로 보아 관점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에 惡阻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던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본고의 논의가 기존의 설명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한다. 서두에서 간략하게 밝힌 惡阻의 원인은 產母의 脾胃虛弱, 痰飲, 肝鬱, 衝任脈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脾胃虛弱의 경우 脾胃가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惡阻의 증상이 惡心, 嘔吐와 같은 소화기 증상 위주로 발현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脾는 음식을 水穀之氣로 만드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욕구를 주관하여 食慾을 인지하거나 통제한다.⁶⁰⁾ 즉 기계적인 소화, 흡수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신의 몸에 필요한 五味의 종류와 음식에 대한 好惡를 주체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脾의 활동이 神의 작용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위가 약하다’는 표현 또한 단순히 소화기능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닌 점과 일맥상통한다. 惡阻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제시된 痰飲은 氣運行의 阻滯로 발생하며⁶¹⁾ 脾胃 기능의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 脾의 運化작용 실조와 소화기능의 저하는 체내에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津液, 즉 痰飲의 형성에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脾胃虛弱과 痰飲이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惡心, 嘔吐, 어지럼증 등과 같은 惡阻의 증상을 토대로 파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惡阻를 경험하는 산모들이 특정시기에 脾胃가 虛弱해지거나 痰飲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脾胃의 문제와 痰飲은 惡阻의 증상이 두드러지는 산모의 素因을 가리키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惡阻의 發生處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肝과 衝任脈의 변화를 惡阻의 원인으로 본 관점은 공통적으로 임신 중 일어나는 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볼 수 있다. 임신에 따른 血의 변화로 惡阻를 설명한 대표적인 예로 張介賓의 논설을 들 수 있다. 그는 임신이 되면 衝任脈이 막힘으로 인해 氣가 下行하지 못해 嘔逆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태아의 성장에 따라 臟氣가 胎氣를 뒷받침하기에 급급하여 거슬러 오를 겨를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소실된다고 설명했다.⁶²⁾ 이 설명에서 受胎

59) “惡阻病者, 心中憤悶, 頭眩, 四肢煩疼, 懶惰不欲執作, 惡聞食氣, 欲啖鹹酸果實, 多睡少起, 世云惡食, 又云惡字是也.” (諸病源候論·卷四十一·任娠惡阻候)

60) 金鍾鉉 외 3인. 黃帝內經에 나타난 脾胃의 기능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 28(3). p.154.

61) 巢元方 撰集, 柳長華 主編. (中醫古籍精校叢書) 諸病源候論.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 “痰飲者, 有氣脈閉塞, 津液不通, 水飲氣停在胸府, 結而成痰.”

62) “凡惡阻多由胃虛氣滯, 然亦有素本不虛, 而忽受胎妊, 則衝任上壅, 氣不下行, 故爲嘔逆等證, 及三月餘而嘔吐漸止者, 何也. 蓋胎元漸大, 則臟氣僅供胎氣, 故無暇上逆矣.” (景岳全書·婦人規上·胎孕類·惡阻 二一)

시에 衝任脈이 壅滯되는 까닭은 평소에 일정하게 일어나던 月事가 그쳐 血이 정체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血의 물리적 정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月事로 귀결되는 일련의 상호작용이 멈췄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즉 心과 子宮이 각각 君火와 相火로서 교류하기를 그쳤기 때문이다.⁶³⁾ 衝任脈이 모두 子宮에서 기원하는 바, 衝任脈의 막힘은 다름 아닌 子宮의 변화로 인함이며, 子宮과 心의 관계를 相火와 君火로 본 견해에 따르면 子宮과 心의 긴밀한 관계에서 임신의 어떤 측면이 불화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子宮이 血을 매개로 肝과 관계 맺고 있으면 肝鬱이 惡阻의 원인으로 언급된 것 또한 이해할 수 있다.⁶⁴⁾

본고에서 밝힌 惡阻의 발생과 3개월째 태아 발달 간의 연관성은 惡阻의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 心的인 측면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기존의 논의에서 원인으로 제시된 脾胃虛弱과 痰飲은 시기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惡阻의 발생 원인이라기보다는 素因으로 볼 수 있으며, 肝鬱이나 衝任脈의 막힘 또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血을 매개로 하는 子宮과 心을 포함하는 네트워크⁶⁵⁾ 가운데 惡阻의 氣上逆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IV. 결론

본고는 임신 중 惡阻에 관한 기존의 내용에서 惡阻의 가장 주요한 특성인 시기성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惡阻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惡阻가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가 태아의 발달 과정 상 임신 후 3,4개월 때 까지, 즉 본고에서 명명하기를 ‘태시기’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시기 가운데 惡阻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3개월째에 성별이 나뉘고 산모의 手心主脈의 작용으로 태아의 神이 생겨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르면 3개월째가 되었을 때 산모의 몸 안에 두 개의 의식이 공존한다. 이후부터 출생 때까지도 두 의식이 함께하는 상황은 동일하나, 3개월째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때가 두 의식 간의 최초의 만남이자 충돌이기 때문이다.

산모와 태아의 연결을 전제한 태교에서도 이 때 산모의 心과 태아가 血脈으로 연결되어 있어 산모의 心動이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말했는데,⁶⁶⁾ 태아의 발달 과정 내용에 따르면 이 연결 관계가 최초로 성립되는 것이 바로 3개월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의식이 관계를 맺는 시작점에서 일어나는 충돌에 대한 반응 가운데 惡阻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산모와 태아의 관계에서 태아만 산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모 또한 태아의 영향을 받음을 의미하며, 惡阻를 다름에 있어서 보다 心的인 접근의 필연성을 함축한다.

이러한 관점은 惡阻의 발생 원인에 관한 기존 韓醫學 文獻상의 논의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임상에서 보다 다양한 양상의 惡阻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惡阻의 원인을 밝힘에 있어서 心的인 차원의 인식은 결국 心과 子宮이 축을 이루는, 여성의 妊娠과 出産을 주관하는 연결망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므로 女性生理에 관한 이해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생애 첫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o2017R1C1B5076769)

63)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p.565. “胞即子宮, 相火之所在也. 心主血脉, 君火之所居也. 陽氣上下交通, 故胞脉屬心而絡於胞中, 以通月事. 今氣上迫肺, 則陰邪遏絕陽道, 心氣不得下行, 故胞脉閉而月事斷矣.”

64) 尹銀卿, 白裕相.. 韓醫學 文獻에 나타난 子宮에 對한 考察-子宮의 概念과 機能을 中心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6. 29(4). p.12.

65) 尹銀卿, 白裕相.. 韓醫學 文獻에 나타난 子宮에 對한 考察-子宮의 概念과 機能을 中心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6. 29(4). p.12.

66) 尹銀卿. 韓醫學의 觀點에서 본 胎教新記의 胎教論.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8. 31(1). pp.168-170.

References

1. Fairweather. Nausea and Vomiting in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968, 120(1).
2. S. Flaxman, P. Sherman. Morning Sickness: Adaptive Cause or Nonadaptive Consequence of Embryo Viability? The American Naturalist. 2008. 172(1).
3. 대한한방부인과학회 編著. 한방여성의학(下). 서울. 의성당. 2012.
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5. 李順保 主編. 中醫婦科學古代醫書合集(上冊). 北京. 學苑出版社. 2017.
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7. 巢元方 撰集,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 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8.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4.
9. 深炎南 主編.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10. 嚴曉瑩. 妊娠惡阻病 歷代文獻及方藥證治規律研究. 廣州中醫藥大學. 2013.
11. 尹銀卿, 白裕相. 韓醫學 文獻에 나타난 子宮에 對한 考察-子宮의 概念과 機能을 中心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6. 29(4).
12. 尹銀卿. 韓醫學的 觀點에서 본 胎教新記의 胎教論.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8. 31(1).
13. 이가원, 안병주 감수.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4. 李槿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15.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景岳全書. 서울. 법인문화사. 2007.
16. 張介賓 撰, 李南九 懸吐註釋. 類經. 서울. 法人文化史. 2006.
17. 趙佶 編.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18.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9. 許浚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1.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 연구원출판사. 1985.
21.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22. Wikipedia Foundation Inc. Wikipedia. 2018.